

01 교회소식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은혜와 감동이 넘친 추수감사절 기념예배 및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새 예루살렘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교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03 기획특집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은혜와 감동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04 간증

아픔도 축복으로 바꿔 주신 주님

치료와 영매, 시애틀 축복을 받은 이정규 집사와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아버지가 치료됐다는 태국 수티팜 리한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09호 2013년 11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2013년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 및 성례전

지난 11월 17일 주일 대예배는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로 드렸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심고 행한 것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출 23:16)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대예배 시 ‘은혜’(마 7:11)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올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모두가 영과 온 영의 열매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녁예배 시에는 ‘눈물’(요 6:53-55)이라는 제목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영광을 돌리려면 회개와 감사의 눈물,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거행됐다. 보통 성례부에서는 성찬식 한 주 전부터 작정해 기도하고 성찬 기물을 손질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한다. 매년 8월쯤에는 이듬해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사용할 1년 치 포도주를 직접 담근다.

10년 넘게 성례부 부원으로 섬겨온 김옥희 권사는 “성도들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능력받아 더욱 말씀 안에 거하고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뤄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특별히 이번 성찬식에는 포도주를 찬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와 감동이 더했다.”며 감사해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물론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동참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중복음으로 변화된 만민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열매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단 장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사진 1). 이재록 목사는 저녁예배 설교 후 성찬예식을 집례했고(사진 2),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렸다(사진 3).

새겼다. GCN 방송으로 참여한 네팔 머히마 라이 자매(네팔만민성결교회)는 “성찬식을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다. 떡을 떼 때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의 눈물

을 흘렸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쳐 주신 목자님을 떠올리며 감사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 말씀 안에서 나를 더욱 발견할 수 있었

고, 온전히 변화돼 주님을 따르리라 다짐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습식은 두 주 전, 세례식은 한 주 전 주일 대예배 후 분당에서 있었다.

포토뉴스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지난 11월 17일,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앙골라,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8개국에서 지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축하 행사를 가졌다. 1부에는 담임 정명호 목사가 ‘만민 제단을 향하신 인간 경작의 섬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2부에는 성도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11)

은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인간 경작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자유 의지를 주시면 결국 배신할 것도 아셨지요. 이후로 아담의 자손 중에 수많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믿으셨기에 인간 경작을 포기할 수 없으셨지요.

오늘날까지 이 땅에 무수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각각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각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3단계 초입도 마찬가지이지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목자인 제가 볼 때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양 떼를 보아도, 의와 틀 속에 수년간 정체된 일꾼을 볼 때도 '저분은 안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더 힘을 줄 수 있을까?' 궁구했고, '저 영혼이 영으로 들어오는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손꼽아 기다렸지요. 선한 마음이 조금만 보여도, 충성된 행함이 조금만 있어도, 그 장점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큰 선물이란도 받은 것처럼 행복했지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에 민망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런 좋은 면이 있으니 반드시 온전케 될 수 있다.'며 믿고 기다리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기에 지금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2.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신 은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거나 부귀영화가 있다 해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도 만납니다. 혹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주고 나를 도와주리라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다치면 배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앞이 캄캄하고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올해만 봐도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응답받은 많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셨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를 버리고 선결되는 것도, 영을 사모하는 마음도,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중심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또한 변화되고자 사모할 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십니다.

3.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신 은혜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 품에 있으면 어떤 맹수도 겁날 것이 없지요. 하나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한 대로,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매순간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도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해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니 그분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람 편에서 죄의 담으로 인해 그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회개할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회개한다 해도 중심의 회개가 되지 않으면 곧고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지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시험 환난이 오면 어찌지? 지옥 가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 속에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이 막연한 곳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갈 곳'이고, '아버지의 얼굴을 뵈고 싶어서, 그 품에 안기고 싶어서 꼭 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소망을 품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올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새 예루살렘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은혜였지요.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17,652,5618,5619, 5626,5630,5712,5714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이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다.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 명령 등을 말하지만 넓게는 하나님 말씀, 곧 성경 66권을 의미한다.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늘 함께한다는 의미도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곧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왜 복된 일인지 살펴보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첫째

말씀을 대할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듯한 은혜와 감동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져 더 친근하게 사귀어 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픈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감동으로 인해 신속히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해도,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한다면 은혜와 감동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을 즐거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 마음에 더 깊이 심어질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마음이 생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활력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익히고 지켜 행한다'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닮아가기보다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당연한 행위이며, 도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거나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지식으로만 양식 삼는 것이 아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지킬 수 있기 때문

같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당시 형편과 처지, 신앙 상태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감동, 깨우침이 다르다. 때문에 힘써 성경을 읽고 은혜로운 구절들을 암송하며 되새겨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자신이 발견되고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는 물론, 이미 들은 말씀도 다시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 보면 결국 더 깊이 깨달아 자신을 발견하며 기도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신 대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면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주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떠올려 주고 깨우쳐 줌으로 행실뿐 아니라, 몸과 마음,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엇이 죄이고 악인지, 세상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며 양식을 삼아갈 때, 빛과 어둠을 분별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성령이 깨우쳐 주시며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셋째

'주님이라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실까' 궁구함으로 그 마음과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떠올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가능한 일이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묵상하고 양식 삼아 가다보면 먼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때로는 그 답대로 행할 때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가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마음에 양식 돼 나중에는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나 고민을 할 때가 있다. 이때 양식 삼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 곧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궁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설교 내용 중 비슷한 상황에 대한 말씀과 양식 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 또는 그동안 들었던 진리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정성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성령이 도와주시니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차츰차츰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1.24~11.30</p> <p>November</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혜추수감사절 • 1차 영혼육 2-6 • 사랑장 7-11 • 선3-7 • 십계명 8-10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지옥 15-17 • 우리삶의 등불 1-2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그릇 2(이수진 목사) • 자기중심 2(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이희선 목사) • 생명수 7(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5(정구영 목사) • 영안이 열리려면 2(김승신 전도사) • 소원 (이재정 집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 • 찬양드려요 5-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5-6 • 향기 5-6 • 우리하나 4-5 • 플로리스트 6 • English 3 • 아름다운 예배 3-4 • 다함께 찬양해 10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연합대성회 4 • 2013 이스라엘 선교 1-2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p> <p>GCN 방송</p>
--	--	--	--	---



“35왕소금구이 대박,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정규 집사 (대구만민교회)

저는 친구의 전도로 대구만민교회에 출석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결혼 후에도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며 십일조도 온전히 하지 않았지요. 그해 12월, 결혼한 지 9개월 됐을 때 저희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내 권민정 집사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유여곡절 끝에 임신이 됐지만 2개월 만에 유산이 됐지요. 마침 대구만민교회에서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이 인도하시는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임태를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됐습니다. 이에 순산을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받고자 서울로 올라갔지요.

당회장님께 한 번 유산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우리 교회 성도는 온전한 주일성수와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면 절대로 유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2012년 7월, 하울이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터에도 축복이 임했지요. 2011년 5월,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에 ‘35왕소금구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고기 두께를 3.5cm로 해서 팔았기에 ‘35왕소금구이’라고 이름했지요. 처음엔 20~30만 원 드리던 십일조가 점차



불어나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예물을 즐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심고 달려가니 하나님께서는 딸 하울이의 혈관종(신생 혈관으로 형성된 양성 종양의 일종)도 치료해 주셨지요. 하울이는 태어난 후 콧등과 이마에 혈관종이 생겼는데 점차 확대돼 콧등엔 1cm, 이마엔 3cm 정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저희 부부의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 혈관종은 점점 사라졌지요.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찌개를 무료로 서비스해서 무한 리필해 주었지요. 또한 당회장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된 권능의 무안단물을 고기에 뿌리며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진평동 먹자골목에서 맛있고 친절한 식당, 대박집으로 소문이 났지요.

2012년 10월에는 인동에 2호점을 오픈했는데, 2013년 5월 경 당회장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부터는 십일조가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연예인들도 다녀가고 있지요. 12월엔 3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축복받고 화평하게 사는 행복한 모습에 큰 처남과 장인 장모님도 주님을 영접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제 삶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브라에 물린 아버지, 손수건 기도로 신속히 회복됐어요”



수타팁 라한 성도 (태국 치양라이만민교회)

이웃의 전도로 치양라이만민교회에 2011년 4월,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도였던 저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중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4가지 자격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방콕에 위치한 백신 연구소 실험용 뱀 농장에서 2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말, 길이 1미터가 훨씬 넘는 실험용 코브라에게 오른손 소지, 약지, 중지 세 곳을 물려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지요.

물린 자국은 크고 깊었으며 이빨이 빠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독으로 인해 썩어버린 살을 도려내고, 독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환부의 살을 파내야 했지요. 의사는 생존 가능성이 50%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불교신자였음에도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1년 전 치양라이만

민교회를 방문해 은혜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제가 꾸준히 전도해온 터라 쉽게 마음 문을 연 것이지요.

마침 치양라이만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재원 선교사님이 방콕 출장 계획이 있으셔서 심방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받기 위해 제가 보내드린 만민뉴스(www.manminnews.com)를 읽으면서 선교사님을 몹시 기뻐하셨지요. 바쁜 일정 중에도 선교사님은 병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셨고,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아버지는 수차례 고름을 빼내고 피부 이식을 받은 상황임에도 환부가 바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피부 이식을 하면 회복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아버지는 이식하고 이틀 만에 퇴원한다며 병원에서는 놀라워했지요. 요즘 아버지는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7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기(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율포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